



해경스님의

경전읽기

법화경 ⑧화성유품 ⑦전생의 사연

이 '화성유품'을 산스크리트 본에서는 '전생의 인연'이라고 제명(題名)을 달고 있다. 이 품에는 전반부에 <법화경>이 아득한 옛날부터 설해져 내려온 것임을 밝히고 후반부에는 화성의 비유(比喻)가 설해져 있기 때문이다.

아득한 옛날 대동지승불께서는 원래 전륜성왕의 아들이었고 그에게는 열 여섯의 왕자가 있었다. 대동지승불께서 깨달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16왕자들은 그 권속들과 함께 즉시 보리도량에 계시는 부처님께 이르러 부처님을 찬탄하고 "여러 천신과 백성을 위해 법을 설하소서" 하고 부처님께 간청했다. 또 부처님께서 깨달았을 때, 시방의 5백만억이나 되는 세계가 여섯 가지로 진동하고 큰 광명이 널

게 불도를 이루게 하소서"하며 부처님의 설법을 간청했던 것이다. 이 계승은 너무 유명해 불교의 모든 종파들이 회향문에 널리 사용하고 있고 장엄법회의 마지막에 사용되고 있다.

시방의 브라흐만의 권청과 16왕자의 간청을 받고 대동지승불께서는 3천12행상(三轉十二行相)에 의해 네 가지의 진리(四諦)를 설하고, 널리 12인연의 법을 설했다. 이 설법으로 많은 중생은 해탈을 얻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의 설법에도 역시 많은 중생이 해탈해 무수한 성문 대승이 생겼다.

16왕자는 모두 출가해 사미가 되어 "부처님의 위없는 깨달음의 법을 설하소서"라고 청했다. 이 간청에 의해 2만 겁이 지난 후에 대동지승불께서는 <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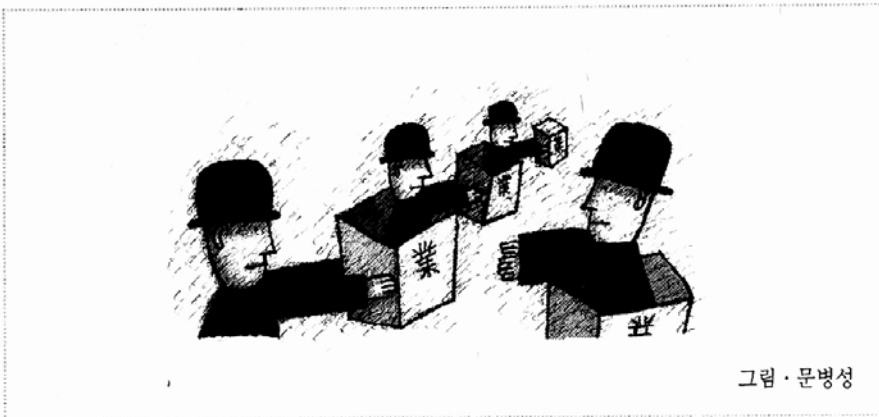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우주서도 상의적 수수관계

이시우 박사가 쓰는
불교와 우주 ⑥

주고 받음과 업

주고받음의 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자아가 실현된다. 이런 과정의 산물이 업(業)이다. 이것은 다시 주고받음을 반복하면서 새로운 업으로 쌓여 간다. 육체적(肉體적), 정신적(개념적) 새로움이 업으로 나타나고, 이것은 다음에 나타날 업에 정보를 축적시키면서 진화된다. 이러한 정보는 유전적 씨앗이나 물리적 구성 요소의 점진적 변화로 나타난다. 이런 점에서 업의 성질은 항상 동일하지 않고 생성이 나 지속, 소멸, 환경 등에 따라 변화한다.

업은 현재의 그 과보가 나타나는 업, 다음 생애 과보가 나타나는 업, 삼세 후에 과보가 나타나는 업, 정해지지 않은 어떤 때 과보가 나타나는 업 등 4종류로 나뉜다. 연속적인 수수과정을 인연의 고리로 볼 때 업은 바로 이 인연의 고리(법계 연기)를 따라 가며 과거가 현재에, 현재가 미래에 업의 정보를 전달하며 축적되어 간다. 자연의 만유는 상의적 수수관계를 통해서 서로 업을 주고받는다.

그래서 석존의 말처럼 '모두가 업일 뿐 작자(作者)는 없다'는 것은 업을 주도하며 변화를 일으키는 주재자는 존재하지 않고, 주체와 객체는 차별 없는 동등성과 통일성을 이루며 평등성과 보편성을 유지해 간다. 이것이 자연의 섭리이다. 그렇다면 수수관계에서 얻어지는 업도 궁극에는 자연의 섭리를 따름이 마땅하다. 그런데 특히 인간은 무차별적인 집착심 때문에 자연의 섭리에 부응하는 업보다는 오히려 섭리에 역행하는 업을 지어가고 있다. 이런 현상이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면서 자연 환경의 파괴와 오염을 통해 인간의 생존마저 위협받고 있다. 그러면 법의 세계에서는 어떠한 업이 이뤄지고 있는가?

별이 탄생하면서 내는 강한 빛은 그 주변의 가스를 데워 빛이 나오도록 별 주위의 넓은 영역이 찬란하게 빛을 내는 발광 성운을 만든다. 대표적인 예가 겨울철에 잘 보이는 오리온자리에 있는 오리온 대 성운이다. 질량이 아주 큰 별에서는 강한 빛 뿐만 아니라 많은 양의 물질이 방출되고, 이것이 주위에 있는 성간 물질에 큰 압력을 미쳐 이들을 더

욱 밀집하도록 함으로써 별의 탄생을 촉진시킨다. 별이 죽어 가면서 방출하는 많은 물질은 다음 세대의 별이 탄생되는 재료로 쓰인다. 밝은 성운과 연쇄적인 별의 탄생은 우주를 살아있게 하는 등불의 업을 짓고, 별의 세대 순환은 우주의 빛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업을 짓는다. 어느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홀로 일생을 살아가고, 이 과정에서 짓는 별들의 업은 오직 자연스러운 순리에 따라 자신을 태워버림으로써 새로운 우주적 활동과 생성을 있게 할뿐이다. 여기에는 어떠한 이기적 욕심이나 집착심이 없다. 그냥 살아 있기에 살아가는 것이고, 삶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은 조상의 별들이 그러했듯이 자연의 섭리에 따라 나타날 뿐이다. 결국 별은 일단 태어나면 죽은 후까지도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고 또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내는 업을 지으면서 우주의 밀거름 역할을 한다.

수 천억 개별로 이루어진 은하는 별들의 생성, 소멸과 운동에 따라 업을 짓지만 두 은하 사이에 충돌이 일어날 경우에는 다소 복잡한 과정이 발생한다. 예를 들면 큰 은하가 작은 은하를 잡아먹어 두 은하의 중심핵이 합쳐지기도 하고 또 큰 은하의 중심부를 큰 속도로 통과해 버리는 경우도 있다. 이 때 은하의 가장자리 별들은 바깥으로 흩어져 둥근 원형을 이루고 또 성간 물질이 모여 별의 생성이 촉진되기도 한다. 두 은하가 비스듬히 스치면서 충돌하는

경우는 두 은하에서 끌려나온 별과 성간 물질이 이들 사이에 다리를 놓듯이 늘어선거나 또는 긴 꼬리 모양의 분포를 이루기도 한다. 이처럼 넓은 우주에서 서로 만날 것 같지 않은 은하들도 조우하고 충돌하면서 인간처럼 상의적 수수관계를 이어간다. 그러나 은하들이 짓는 업은 서로 인력을 미치면서 은하의 운동 경로나 속력을 바꾸고 또 은하 내 별들의 운동이나 성간 물질의 분포를 변화시켜 가면서 별의 세대 순환을 가속시키고 은하핵을 활동적으로 만들면서 조용한 은하를 활동 은하로 만들어 놓는다. 그래서 은하의 충돌을 통해 우주는 역동적이고 적극적인 상태를 새롭게 맞이하게 된다. 여기서 은하가 짓는 업이란 안정과 평형의 달성 또는 불안정성을 통한 활동성의 유발이다. 이것의 과보는 항상 새로운 우주를 만들어내고, 이에 따른 새로운 자연의 섭리를 이룩해 가는 것이다. 인간은 결코 자연의 섭리를 창조해낼 수는 없다. 결국 자연의 섭리를 따르는 것이 좋은 업을 쌓는 참된 길일 것이다.

■전 서울대 천문학과 교수

별들끼리 서로 조우·충돌 은하계 생성·소멸운동 반복 새로운 자연섭리 창출



'불신 씻겠다' 각오 절실

공직자의 자세 각종 비리 의혹사건이 난무한 가운데 국정을 쇄신한다는 취지로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장관(閣) 9명을 포함해 청와대 비서실장 및 수석비서관 6명을 교체하는 등 15명의 개각을 단행했다. 이번 새로운 정치인들이 기용될 때마다 공무원의 윤리강령과 공직자로서의 올바른 자세들이 수없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부패와 실정의 굴레에서 쉽사리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직도 온 국민이 경제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하루 속히 어려움을 타개하고, 불신을 씻을 수 있도록 이번 새로 기용된 공직자들은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할 것이다. 부처님은 "나라의 중신들이 직무를 태만히 하면서 사리만 생각한다면 나라의 기강이 급속히 무너지고" 수많은 경전을 통해 공직자가 갖춰야 할 자세에 대해 강조하셨다.

■부정직한 공직자들은 백성의 복리를 훔치는 도둑일 뿐 아니라, 임금과 백성을 속여 나라를 불행하게 하는 원흉이다. 그러므로 임금은 그런 중신들을 가려내서 엄벌해야 한다. <대설차니견자소설경>

■나라를 위해 벼슬에 있더라도 탐욕하지 않아야 하고, 승진에만 매달려서도 안 될 것이며, 오욕락에 빠지거나 청탁에 개입해서는 더욱 안 된다. 그러한 마음은 벼슬에 있을지라도 국민들을 위한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없다. <불비니향경>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많은 충고와 조언을 받아들여 온갖 일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백성의 안락과 슬픔을 알고, 공과 죄를 확연히 가려 상과 벌을 엄정하게 해야 한다. 현명한 치지는 백성이 곤궁할 때 나누어 주고, 낙할 때 거둬들이며, 세금을 거둬들이고 세금을 부과할 때는 잘 판단하여 될 수 있는 한 가볍게 한다. 이렇게 하면 백성이 잘 화합한다. <대아미타경>

영어로 배우는 불교용어

십우도 Ten Oxherding Pictures, 팔상도 Eight Scenes of Buddha's life, 근자 문양 Swastika, 풍경 Wind bell

On the outer walls of the Main Hall, along with the paintings depicting the life of Buddha and there are often the Ten Oxherding Pictures. And on the outside ends of the Main Hall, up towards the roof, you will see a swastika. The edge of the eaves, a wind bell with a fish clapper is dangling.

대웅전 외벽에는 주로 부처님 일생을 묘사한 그림이나 십우도가 그려져 있다. 그리고 건물의 바깥의 지붕 위쪽에서는 근자 문양을 볼 수 있다. 처마 끝에는 물고기 모양 추를 가진 풍경이 매달려 있다.

The progressive whitening of the ox symbols the gradual awakening of the oxherd to his true nature. (수행정도에 따라 점점 하얗게는 소를 쫓는 십우도는, 깨달음을 향한 목동의 수행 과정을 상징한다. 'Pal Sang Do' is a painting of the eight scenes of the life of the Buddha. It can be found in the Eight Pictures of Hall. 팔상도는 부처님의 일생 중 중요한 8 장면을 그린 것으로 팔상전에서 볼 수 있다. The swastika is a symbol of peace, harmony, and good luck. (근자 문양은 평화, 조화, 행운을 상징한다.)

16왕자에 12인연법 설법

중생들 세세생생 '가르침' 믿고 따라

리 세계를 비추었다. 이 상서로운에 놀라 브라흐만 왕들이 앞을 다투어 부처님 계신 곳으로 날아왔다.

가장 먼저 동방의 브라흐만 왕들이 그 궁전과 함께 서방으로 날아와 그 까닭을 찾았다. 그러자 거기에는 대동지승불께서 보리도량에 앉아 계시고 여러 천신을 비롯해 많은 대중이 부처님을 에워싸고 있었으며, 16왕자가 부처님께 법을 청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이를 본 브라흐만들은 즉시 부처님께 예배하고 자기들의 공전을 바치며 부처님의 설법을 간청했다. 이에 부처님께서 침묵으로 이를 허락했다.

다음에는 동남방의 브라흐만 이 날아와 부처님께 공전을 바치며 설법을 청하고, 또 다음에는 남방의 브라흐만의 왕들이, 서남방과 하방의 브라흐만 왕들도 똑같았다. 최후에는 상방의 시킨(尸棄)이라는 브라흐만 왕을 우두머리로 해 똑같이 공전을 바치며 "바라옵나니 이 공덕으로 널리 입체에 미치게 하여 나와 더불어 모든 중생이 다 함

화경)을 설하신 것이다. 대동지승불께서는 <법화경>을 8만 겁 동안 설하시며 나서 조용한 방에 들어가 8만 4천겁 동안 선정에 드셨다. 그러자 16인의 보살 사미들은 법좌에 올라 많은 중생에게 <법화경>을 설해 각각 6백만 나유타 향하사 수만겁의 중생을 교화해 이를 '16왕자의 법화보강(法華護講)'이라 한다. 대동지승불께서 멸도하신 후에도 계속 설해져 많은 중생을 교화했는데 그 하나 하나의 보살 사미가 교화한 많은 중생들은 세세생생 태어날 때마다 항상 함께 태어나 그 보살 사미에게 가르침을 듣고 믿고 이해한 것이다. 그리고 그 보살 사미들은 모두 성불해 지금 8방(八方)에 두 분씩 계시고 중앙에 부처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가 곧 현재의 나 석가모니불이다"며 전생부터 계속 <법화경>을 설해지고 있고 현재의 여러 분도 그때의 사부대중이었다. 이렇게 부처님과 우리들 전생의 사연에 대해 말씀하셨다.

■무설정사 조실



"경전에서 말씀했습니다. '마음의 생사(生死)를 끊어 버리고 마음의 백백한 수를 베어 버리고 마음의 더럽고 탁함을 씻어 버리고 마음의 집착을 풀어 버린다.' 집착하는 곳에서 마음을 움직여 돌리되, 움직여 돌리는 바로 그때에 또한 움직여 돌리는 도리(道理)도 없다면 저절로 하나 하나 위에서 밝아지고 사물 사물 위에서 드러나, 매일 인연에 응하는 곳이 깨끗하든 더럽든 좋은 싫든 순응하든 거슬러든 마치 진주구슬이 쟁반 위에 있는 것과 같아서 억지로 굴리지 않아도 저절로 구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시절에 이르러 꼭 집어서 남에게 보여 줄 수는 없으나 마치 사람이 물을 마셔서 그 차고 따듯함을 스스로 아는 것과 같습니다. 남양 해충 국사가 말씀했습니다. '법(法)에 얻는 것이 있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들어우의 울음소리이다.' 이 일은 맑은 하늘에 태양이 빛나는 것과 같아서 한 번 보면 바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진실로 스스로 보았다면 샅된 스승이 혼들 수가

'서장' 통한 선 공부 ④

탕승상에 대한 답서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만화영화에 나오는 세상 같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전부 밀가루로 만들어져 있다고 해보자. 이 밀가루는 잘 못쳐지기도 하고 다시 쉽게 가루로 돌아가기도 한다. 산도 바다도 나무도 동물도 사람도 나아가 생각이나 느낌 등 내면적인 것까지도 모두 오직 밀가루로 만들어져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양에서 차이가 나는 산, 바다, 나무, 식물, 동물, 사람 그리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런 느낌 저런 감정 등을 제각각 다른 이름을 붙여 구별할 것이다.

그러나 밀가루 그 자체는 어떻게 될까? 밀가루로 만들어진 것들은 제각각 다른 모양에 따라 제각각 다른 이름을 붙여 구별이 가능하므로 모두 이름을 붙일 필요가 있지만, 밀가루 그 자체의 경우는 정해진 모양이 없으므로 모



김태완 부신대 강사·철학

양을 가지고 구별하여 이름을 붙일 수가 없다. 더구나 밀가루는 동일한 성격을 가진 다른 종류의 가루가 없기 때문에 특히 구별하여 이름을 붙일 이유도 없는 것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밀가루로 이루어진 세계에서 살아가는 밀가

루 인간은 밀가루에 관하여 의식(意識)할 필요가 전혀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모양을 갖춘 밀가루 반죽인 사물이나 의식들과는 달리 밀가루 그 자체는 정해진 모양이 없기 때문에, 의식할 수도 없을 것이다. 어떻게 의식하여도 모두가 반죽이 되어 모양을 갖추어 버려서 본래 밀가루 그대로는 나타나지 않는다. 밀가루에 관한 의식 역시 이미 반

그가 의식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밀가루를 반죽하여 어떤 모양을 만들어서 밀가루에 관한 생각이 나 말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밀가루를 반죽하여 어떤 모양을 만들어 밀가루를 말한다는 것은 모두 가짜일 뿐이다.

이 밀가루 사람이 밀가루를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반죽된 모양에서 완전히 부서져서 밀가루로 돌아가는 것이 방법인가?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미 사람이 없으므로 밀가루를 알거나 모르거나 하는 일도 없다. 반죽된 상태로 사람 노릇을 하면서 밀가루를 반죽된 까짜 모양이 아니라 모양 없는 가루 그 자체로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문제는 반죽된 모양이다. 반죽된 모양에 속지 않을 지혜만 있다면, 눈앞에 나타나는 하나 하나의 반죽이 사실은 전부 다반 밀가루 그 자체일 뿐이다. 그러므로 밀가루 인간은 눈 앞에 나타나는 지금 이대로의 세계가 그대로 밀가루라는 사실을 문득 직각하여 믿게 될 때, 밀가루를 직접 아는 것이다. 알고 보니 근본이 무엇일까 하고 의심하였던 그것조차도 바로 근본인 밀가루였던 것이다. 도(道)가 바로 그렇다.

http://www.mindfree.net/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다

“
마음의 숲을 베어버리고
더럽고 탁함 씻어내고
집착의 끈을 풀어버린다
”

죽어 되어 모양이 갖추어진 채 나타나는 것이다. 밀가루 세계에서는 어떤 생각이나 의식도 밀가루를 통하여 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이처럼 밀가루는 이 세계의 유일하며 불변하는 근원이며서도 그 자체는 도무지 파악될 길이 없다. 그런데 혹시 밀가루 인간 가운데 한 사람이 이와 같이 생겨났다 사라지는 모든 모양과는 다른 불생불멸의 근원을 알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고 한다면, 이 밀가루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일까?

정월방생 및 삼사순례 안내

삼보전에 귀의 합니다. 각 사암 대덕 큰 스님께 인사 올립니다.

본 성모암은 진묵대사님께서 효행을 실천한 사찰로서 성모님 묘소와 더불어 조사님의 영전을 봉안한 도량으로 가까이에는 진묵대사께서 육신 방생의 유래가 있는 100만평의 능제 저수지가 자리한 해동의 최고 방생지이며 방생과 더불어 금산사의 선운사 내소사 개암사를 연결하는 삼사순례의 적격지입니다.

조사님의 혼이 머무는 본 도량에 왕림 하시어 일체 서원을 이루시길 사부대중과 더불어 발원합니다.

오시는 길

호남고속도로 전주IC에서 군산방향 - 대야검문소에서 김재일면으로 10분 - 성모암 서해안 고속도로 동문IC. 서강대IC에서 5분거리

점심공양을 무료로 해드립니다. 종무소 ☎(063)544-0416 (사전에 필히 전화 접수바랍니다.)

전북 김제시 만경읍 화포리 388번지 불거촌

대한불교 조계종 성모암 대중일동